

## 이상열 개인전

Press release

이상열은 산, 큰 바위, 벽을 그린다. 그의 풍경에는 초자연적·신화적 장면들이 겹친다. 그리고 그 앞에는 대개 나체의 인물이 등장한다. 무엇이든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만남'이라는 사건이 필요하듯, 그의 그림은 알고 있음과 마주함 사이의 간격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산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정확하고 풍부해도, 그것만으로 산을 '느낄' 수는 없다. 산을 많이 안다고 이를 잘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잘 그린다'는 기준이 '있는 그대로'에만 놓여 있다면 더욱 그렇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지만, 사실은 대개 '알고 있는 대로' 본다. 직업과 나이, 성별, 취향과 습관이 시선을 만들고, 그 지식은 때로 다른 방식의 보기를 방해한다. 이상열의 산은 그 간극, 곧 '만남'의 지점에서 시작한다.

작가의 생활 속에서 등산과 캠핑, 생존도구·멀티툴 같은 취미는 산을 '보는 대상'이 아니라 통과하고 견디고 넘어서는 '만남'이자 경험의 축이다. 작가에게 산은 영감의 원천이자 고향 같은 배경이기도 하다. 이주를 자주 했다는 그에게 산은 '내가 사는 곳'의 윤곽을 잡아주는 지형이며, '내가 있는 자리'를 붙잡아 주는 기준점이 된다. 이러한 산의 경험은 자연을 빌려 정서와 세계관을 담아내는 태도와 맞닿는다.

이상열은 그렇게 자신이 경험하며 마주한 산이 남긴 감각을 화면으로 옮기며, 그림을 그림답게 그리는 'Poetic Fantasy'의 층위로 옮겨놓는다. 여기서 판타지는 몽상이라기보다, 깊은 산에 들어가면 무엇인가를 '받아' 다른 존재가 될 것 같은 예감에 가깝다. 산에서 마주치는 영엄함이 주술이라면, 이 풍경에는 그 영엄함을 받아 무언가가 될 것 같은 상상—그 가벼움과 무게가 함께 놓이기 때문이다.

전시는 '판타지'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화면이 다루는 것은 오히려 현실의 심리적 지형에 가깝다. "한없이 상상해 가면 언제나 앞에 놓여 있던 '무언가의 벽'이었고, 그 벽은 넘어야 할 산이거나 사람이었다. 현실에서도 그 벽은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삶이다"라고 작가가 말하듯, 이번 작업은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진지한 태도가 이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화면 속에서 작가를 대변하는 젊은 남성 인물들은 비밀상적인 풍경 뒤에 숨어 있거나, 시선을 피한 채 놓인다. 때로는 엉덩이만 드러난 채 관객 앞에 놓이기도 하고, 나무 사이로 삐뚤게 바라보거나 뒤통수의 방향만으로 시선을 암시하기도 한다. 마치 에덴동산의, 화면에는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이브를 먼 발치로 바라보는 '아담의 시선'이 존재한다면 그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이러한 '숨기기'와 '엿보기'의 태도는 자극을 위한 연출이라기보다, 내면의 호기심·욕망·집착 같은 감정이 생겨나는 지점을 선불리 정리하지 않고 남겨두려는 방식에 가깝다.

그의 풍경 속 산과 절벽은 인생의 한계나 위기의 은유로서 오르기 힘든 곳처럼 보이면서도, 언제나 그 다음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남긴다. 화면 바깥에 있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이후'를 암시하는 몽환감이 끝에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산은 넘는 순간 이후의 기쁨을 예감하게 하면서도, 여전히 넘어야만 하는 어떤 수순으로 남아 있다. 더 나아가 저 너머에 또 다른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열리며, 그러한 이유로, 그의 산은 '엄청나게 위협적인 벽'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그렇게 그는 형이상학적 상상력이 다시 태어나는 여지, 곧 "넘는다는 행위가 곧 나를 만드는 과정"임을 화면 안에 열어둔다.

이러한 감각은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에서도 이어진다. 이상열이 만들어낸 풍경 속 장면들은 기법적 조작으로 조형적 완성도를 빠르게 끌어올리기보다, 직설적인 이미지와 다소 모호한 분위기가 함께 남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 모호함은 결핍이라기보다, 아직 언어로 고정되지 않은 정체성이 화면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 또한 재료와 표면에서도 그는 동양화 전공의 배경을 유화 작업으로 가져온다. 화선지를 캔버스처럼 사용하되 유화 물감이 과하게 스며들지 않도록 오일을 충분히 올려 표면을 만든 뒤, 그 위에 유화를 엮는다. 재료의 혼종 역시 경험과 기억이 남기는 흔적을 화면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경희대학교와 공간형이 협력해 진행하는 작가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CURATE 101의 후속 프로그램인 <CURATE 201>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외부 공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가에게 외부 전시의 기회를 연결하는 구조 속에서, H-flux Gallery가 협력공간(Venue Partner)으로 참여해 그 발표의 장을 맡았다.

미술 담론의 경향과 유행에 휩쓸리거나, 혹은 이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일이 예술 활동의 동기를 확보하고 인정을 빠르게 얻는 데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상열은 유행하는 담론으로 자신을 설명하기보다, 개인의 경험과 심리의 구조를 더듬어 찾는 방식을 택한 듯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더욱 솔직할 수 있는 내면의 이야기를 천천히, 묵묵히 담아내며 작업의 밀도를 쌓아간다. 이번 작업들은 그러한 태도 속에서 형성된 필연적인 결과물들이다.

이번 전시가 의도하는 것은 '완성된 결론'이나 빠른 단정적 평가라기보다, 한 작가가 자신의 리듬과 규칙을 만들어가는 방식—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남기며, 어디로 이어가려 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일일 것이다. 정리된 결론보다 화면에 남는 밀도를 우선하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이상열이라는 작가를 눈여겨보는 이유이며, 앞으로의 가능성은 더욱 소중하기 때문이다.

글. 김은희 (Ph.D., Art Psychology, 공간형 디렉터)